

Trill 발생시 전기성문과 측정법상에서 나타난 성대점막운동의 변화

진성민*, 반재호, 이경철, 권기환, 이용배
성균관 대학교 의고대학 강북 삼성병원 이비인후과

배경 : trill은 혀의 첨부가 호기에 따라 진동하면서 경구개 전방에 부딪혀 나는 소리로 주로 “르” 발음으로 들린다. trill은 성악가들에게는 발성전에 후두의 준비운동으로 사용되고, 성대수술 반흔에 의한 애성환자나 노인성 음성장애환자의 음성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목적 : trill을 실시할 때 전기성문과 측정법상에서 나타난 성대점막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trill 기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trill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피검자 1인이 “아-”모음과, 혀의 첨부를 경구개 전방으로 밀면서 치아 가까이에서 진동시켜 나오는 trill, 혀를 후방으로 당기면서 경구개릉 부위에서 진동시켜서 나오는 trill을 각각 15회씩 실시하면서 음향적 검사와 전기성문과측정 검사로 각각의 성문폐쇄율(CQ)과 성문접촉속도율 (SQ)을 측정하였다. 혀가 전방 또는 후방에 위치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제1, 제2 포만트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 15회중 14회에서 혀를 후방으로 당겨서 경구개릉 부위에서 진동시키는 trill기법이 가장 높은 SQ값을 보였고 이중 5회에서는 치조돌기에서 진동하는 trill이 “아-”모음보다 낮은 SQ값을 보였다. 1회에서는 치조돌기에서 진동하는 trill이 경구개릉에서 진동하는 trill보다 SQ값이 높았다.

결론 : trill을 음성치료에 사용할 경우 실시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혀를 전방에서 진동시키는 것보다 가능한한 후방으로 당기면서 진동시키는 기법이 성대점막의 진동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